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불법!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회사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조합원 확보, 운영 등이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 어용노조는 자주성 및 독립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창조컨설팅과의 전략회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을 지적하며 어용노조는 노조파괴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노조파괴를 부인해온 유성기업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다.

법원 조치도 노조파괴 모두 인정

금속노조가 2011년부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했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태도는 너무 편향적이었다. 창조컨설팅과의 노조파괴 전략회의 문건이 낱낱이 밝혀졌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실행됐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간신히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노조파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무리한 사업주 봐주기 수사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노조법을 악용하여 어용노조 설립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한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5년간의 투쟁이 민주노조를 지키는 최초의 판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유성기업 사측은 여전히 노조파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이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사의 한을 푸는 시작점

한광호 열사가 이 판결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법과 정의도 결국 자본 편이라는 절망감이 열사를 극단적인 선택을 몰았을 것이다. 어용노조 설립 취소 같은 속 시원한 판결이 진작 나왔다면 열사의 한도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노조파괴를 끝장내자. 열사의 한을 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잊지 않습니다.

세월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2년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는 아직도 바다 속에 그대로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은 6월말로 끝난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후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총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을 상대로 '특조위 조사 보장과 특검실시, 세월호 선체 인양, 민간잠수사까지 피해자 범위 확대, 중대재해 기업 처벌'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동의했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20명이 약속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로 인해 멈춰있던 진상규명이 진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정신 계승 촛불 추모문화제

- 매주 (월) ~ (목) 18시30분
- 유성기업 영동공장 (월, 수)
- 충북 영동 삼일공원 (화, 목)

■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노조파괴 분쇄! 집중 집회

- 4/22(금) 16시
- 유성기업 영동공장